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68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워킹스루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37명 검사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제주공항 워킹스루’ 코로나19 팬데믹 처방전 되나
- 차 안에서 맛보는 제주산 뽕소라 꼬치구이 “미각 자극”
- ‘농산물 꾸러미’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으로 확대

2020. 4. 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 4. 9.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 4. 9.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12명 (격리 중 8명, 격리해제 4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확진자 접촉	해외 입국
제주	3,607	12	4	8	0	3,595	79	3,516	124	449*
일일증감	+115	0	0	0	0	+115	-8	+123		
전국	494,711	10,423	6,973	3,246	204	484,288	15,509	468,779	격리해제 501	

※ 전국통계는 질병관리본부, 제주통계는 자체 집계 통계 /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자 검사내역['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구분	검체채취			검사내용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양성	음성	확인 중
4/7	52	37	15	52	-	52	0
4/8	37	34	3	37	-	16	21
누계(3.30.~)	503	404	99	503	2	480	21

※ '20.4.9. 00시 기준 제주도 자체통계

□ 자금지원동향('20.4.7.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47건/ 195명	880건/ 9,695명	205건	13,231건	128건	10,328건	6건	1,088건
처리	7건/ 0.52억	41건/ 3.48억	102건/ 40억	5,643건/ 2,168억	69건/ 18.5억	2,976건/ 862.2억	27건/ 45.5억	989건/ 120.7억

□ 입도객 현황 ['20.4.8.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2,662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9.8%, 전일 대비 +2.2%)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2,662	12,630	32	0	1	31
	2019년	41,938	37,650	4,288	2,596	177	1,515
	증감률	△69.8%	△66.5%	△99.3%	△100%	△99.4%	△98.0%
누계 (2.23.~)	2020년	702,462	695,753	6,709	548	628	5,533
	2019년	1,743,155	1,549,386	193,769	108,218	11,068	74,483
	증감률	△59.7%	△55.1%	△96.5%	△99.5%	△94.3%	△92.6%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집계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4. 9.(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있음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37명 검사

-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내국인 34명, 외국인 3명 추가 검사 실시... 총 503명 검사 -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37명(내국인 34·외국인 3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8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37명 중 16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9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 피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 이로써, 4월 9일 00시 기준 도내에서는 총 503명(내국인 404명·외국인 99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즉시 입원치료에 들어갔다.

□ 한편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4월 9일 00시 기준 124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 이와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501명이다.

□ 8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2,662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9.8%가 감소했고, 전일 보다는 2.2%가 증가한 수치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 대상 -
- 국비50억원 중 1차로 35억원 활용,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이하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 1일(8시간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9일부터 22일까지 매일(09:30~17:00, 주말·공휴일 제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 제주도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후 3.31. 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 우선순위는 ①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②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③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에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 된다.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5만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 지원신청은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 제주도에서는 사업취지 및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 또한,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처 안내

구분	제주시지역	서귀포시지역
무급휴직 근로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청사로길 18-4(모남동) 4층) ☎070-8990-4830~3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070-8990-4834~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층) ☎064-745-9590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070-8990-4834~5

□ 한편 제주도는 앞선 8일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 △4월 중 제주도 자체 1차 지원 △5월 중 정부 지원 매칭 통한 지원 △6월 중 제주도 자체 2차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4차례 지원하는 셈이다.

○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무급휴직자 지원)	양제윤 일자리과장	064) 710-3790
(특고, 프리랜서 지원)	김명규 경제정책과장	064) 710-2480
※ 접수문의 : (무급휴직자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070-4566-9788)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753-5667)

‘제주공항 워크스루’ 코로나19 팬데믹 처방전 되나

- UCLG 세계보건도시 웹사이트에 제주도 선제적 방역대책 상세 소개 -

-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세계지방정부연합(이하, UCLG) 세계보건도시와 공유되고 있다.
- 제주도는 UCLG가 구축한 웹사이트(<http://www.citiesforglobalhealth.org>)에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주기적으로 게재해 UCLG 회원도시에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세계지방정부들이 UCLG를 통해 한국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 제주도에 따르면 UCLG는 지난 7일 코로나19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검체 검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을 소개했다.
 -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공항 입국장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공항주차장에 마련된 워크스루에서 검체채취한 뒤 14일간 자가격리와 1대1 능동감시 및 모니터링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주도의 워크스루 운영은 140개국 25만 여 지자체와 175개 지자체협의체 회원도시에 전파됐다.
 -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ASPAC) 사무국은 홈페이지에 우리

나라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소개한 가이드를 게재한 상태다.

□ 제주도는 앞으로 ‘해외 방문 이력 입도객 특별입도절차’, ‘긴급재난문자 상황별 안내’ 등 전국 수범사례로 손꼽혔던 코로나19 대응 대책들을 차례로 게재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제주의 모범사례를 자료화하고, UCLG 회원도시와의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조기에 종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10일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에 원희룡 도지사 명의로 위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한편, 제주도는 2004년 UCLG 회원 가입한 후 2007년 UCLG 월드총회 및 2017년 UCLG 문화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특히, 원희룡 지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 회장을 역임하면서 아·태지역 문화분과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 관련 문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 064) 710-6250

▼ [참고] 세계보건도시 웹사이트에 소개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진료소 운영사례

Special entry procedures for those who have visited foreign countri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read of the virus continues causing dire situations across the world. As COVID-19 is raging across the world, it isn't over till it's over in the whole world, even if one area or one country has managed to cope well with it, has brought it under control, and has started to fight."

Quote by Governor's Opening Speeches during a briefing on March 15, 2020

1. Measures outside South Korea (as of 00:00, March 15, 2020)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and countries: 365,274 people from 142 countries

in 35,715 in Italy, 17,581 in Iran, 15,770 in Spain, 5,334 in France, etc.

2. Challenges

Numerous cases of "imported infections" have been confirmed for those who have visited foreign countries where a cluster of infected cases were reported, such as in Europe.

3. Detailed Plan

1. Special entry procedures will be put in place for those who have visited countries with infection hotspots.

Inflight announcement for airplanes arriving on Jeju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with the help of the airline companies and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Information desk at the airport arrival section

- Current staff doing temperature checks will continue to be in charge

in case any problem arises such as fluenter workload, additional staff will be mobilized

- Those who have visited infection hotspots over the previous two weeks will be guided separately and informed on the hot spot support they can get

in Screen barriers will be used to guide people along the route to the arrival desk

- The form (Korean, English and Chinese) for overseas travel history should be filled in, including name, contact information, health questionnaire, and cons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t will be on the list for COVID-19 test others will be handed out

Publicity through bulletin boards at the airport, the provincial government's social media channels (or SML, TV) advertisements, and announcements within public transit facilities

- "Let us know about your overseas travel history": information on supporting the test for the virus will be provided

4. Jeju Special Entry Procedures at Ports and Airports

First line of containment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 Special Procedures for Entry to the country

- Check core temperature

- Issue a health questionnaire

- Fill in a travel record declaration

- Insert a self-diagnosis mobile app

in Fill in the contact information, check the box for agreeing to receive the notifications and record daily status or symptoms on the app

- Notify contact information to the public health centers with jurisdiction

in Good travel plan is being drawn up at the Central Accident Response Headquarters

Information

Country: South Korea

Published: 05/04/2020

Emergency: Designed specifically as a reaction to the COVID-19 outbreak

Type of Initiative: Prevention/Preparation

Contact information:

jejujeon@nema.kr | 02-82-710-6203

Website link:

<https://www.jeju.go.kr/comm/01/y-covid1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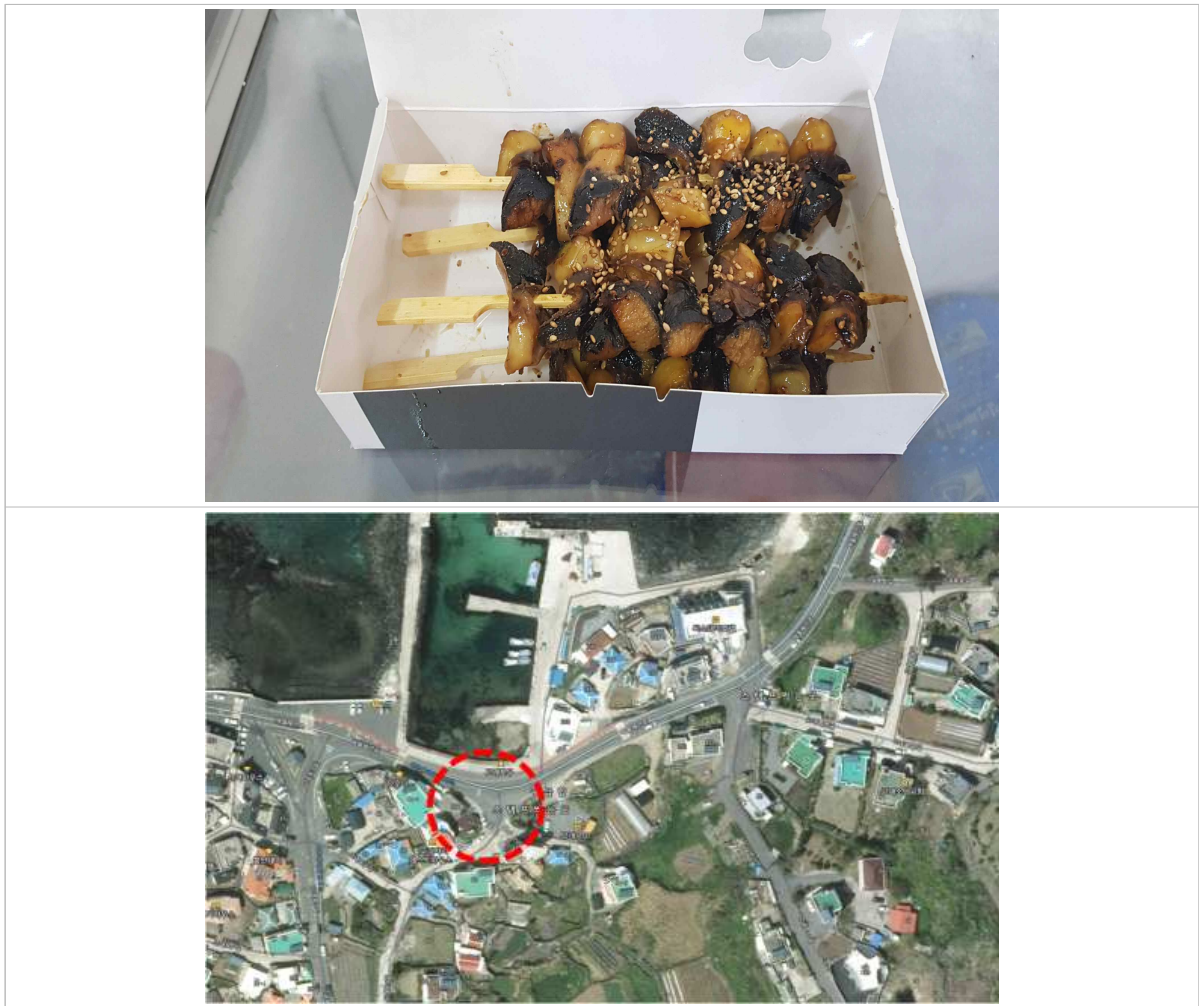
차 안에서 맛보는 제주산 뽕소라 꼬치구이 “미각 자극”

- 11일 오후 2~6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서 드라이브스루 할인판매 행사 -

-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1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주 뽕소라 꼬치구이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제주산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 할인판매는 광어회, 축산물에 이어 세 번째다.
- 현재 대일본 수출 규제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제주산 뽕소라 소비가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소라 총 허용어획량은 1,750톤이지만, 3월말 현재 생산량은 1,049톤으로 59.9%에 불과하다.
 - 특히, 현재 생산된 소라의 처리난이 우려됨에 따라 소라꼬치로 가공해 판매하게 됐다.
- 애월읍 고내리 어촌계가 생산한 소라를 가공한 꼬치구이 4개가 1팩(350g)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1팩 당 1만원이다.
- 판매는 고내리 어촌계에서 담당하며, 선착순으로 200팩을 판매할 예정이다.
- 1팩(350g) 당 소라 생물 2kg에 해당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통해 400kg의 물량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도는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판매 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판매 호응도에 따라 도내 어촌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참고] 뽕소라 꼬치구이 판매 상품사진 및 행사 위치도



※ 관련 문의: 해양수산국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064) 710-3250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064) 751-1171~3

‘농산물 꾸러미’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으로 확대

- 4월 한 달 간 도민대상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
- 사전주문 후 제주·서귀포오일시장서 수령...오는 11일 시범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대상을 확대해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으로 전개한다.

- 앞서 제주도는 도 및 유관·공공기관, 직속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행사를 진행했다.
-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으로 확대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된다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행사는 오는 11일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사전 주문과 드라이브스루 현장 수령 방식으로 추진된다.

- 이번 행사는 제주·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상인회 협조로 제주·서귀포시오일시장에서 열린다.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과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제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선별비와 포장재, 행사진행 등을 지원한다.
-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화(☎757-6245) 또는 온라인(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http://ppuridajeju.com/kor/>)으로 사전 주문하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은 13일부터 가능하다.

※ 제주시오일장 제3주차장: 4월 18일, 25일 오후 3~6시

※ 서귀포오일장 북측 주차장: 4월 17일 오후 3~6시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토마토·시금치·오이·청상추·파프리카·애호박 등 6개 품목(2kg)으로 구성된 1만 원 꾸러미와 6개 품목에 당근·감자·아욱·대파가 추가된 10개 품목(4.4kg) 2만 원 꾸러미 등 두 종류다.

○ 오는 11일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1만 원 꾸러미를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사전주문 없이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 한편, 제주도는 10일까지 도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5차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도는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대형 인터넷 유통망과 연계한 도외 판매와 정기적인 드라이브 스루 직거래 장터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064) 710-3050

▼ [참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행사 홍보 포스터

승차구매로 안전하고 편하게

코로나19 대응
제주친환경농가 살리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행사

1만원 꾸러미



6품목 2kg
 (토마토, 시금치, 오이, 청상추, 애호박, 파프리카)

2만원 꾸러미



10품목 4.4kg
 (토마토, 시금치, 오이, 청상추, 파프리카, 애호박, 감자, 당근, 아욱/근대, 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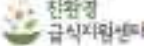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수요일까지 사전주문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오일장(15~18시)에서 수령하세요.

- 4월 11일, 18일, 25일(매주 토요일) → 제주시오일장 제3주차장
- 4월 17일(금요일) → 서귀포오일장 북측 주차장

(전화주문) 757-8245 (온라인주문) <http://ppuridajeju.com/kor/>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문의) 710-498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급식생산지원센터

- 〈별첨〉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방법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